

LG정유, 해외유전 개발 첫 성공

캄보디아 해상광구에서 원유 발견 ... 원유 · 가스 지분비율 15%

LG-Caltex정유(대표 허동수)가 캄보디아 해상 블록A 광구의 4개 탐사정에서 모두 원유를 발견했다.

LG정유는 “캄보디아 서부해상 130km 지점에서 4개의 탐사정을 시추한 결과 원유 함유층의 두께가 탐사정에 따라 41-139피트로 조사됐으며 시추된 원유는 API44에 해당하는 양질의 경질원유로 분석됐다”고 밝혔다.

LG정유는 탐사 1기 작업이 마무리되는 2005년 2월말까지 탐사정 1개를 추가로 시추해 5개 탐사정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원유의 매장량 및 경제적 가치 등을 정확하게 집계할 계획이다.

또 정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캄보디아 해상광구에 대한 탐사 2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.

캄보디아 블록A 광구는 총면적 6278km²에 평균 수심이 70-80m인 해상 광구로, LG정유는 2003년 1월부터 미국의 ChevronTexaco 및 일본의 Mitsui Oil Exploration과 함께 물리탐사와 시추탐사 작업을 벌여왔다.

광구의 지분은 LG정유가 15%, ChevronTexaco가 55%, Mitsui가 30%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, 앞으로 생산되는 원유 및 가스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.

LG정유는 앞으로도 성공 확률이 높은 석유탐사 및 개발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.

또 유전개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유 수급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에 적극 대비하는 한편 에너지 원 개발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05/01/14>